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제5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5631), 이보라 사무관(5633)

「제10차 WTO 각료회의」 결과

(12.15~19, 케냐 나이로비)

▸ 농업 수출경쟁, 최빈개도국 우대 등 각료결정 채택

□ (**합의 내용**) 12.15(화)~12.19(토)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「제10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*」에서 도하개발어젠다(DDA) 농업 3개(수출경쟁, 특별긴급관세(SSM),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), 면화, 최빈개도국(LDC) 우대 2개(특혜 원산지, 서비스 웨이버) 등 **6개의 합의문**(☞상세 참고)**이 채택**됨

* 12.15일자 보도자료(각료회의 참석 예정), 12.16일자 보도참고자료(수석대표 기조연설문), 12.17일자 보도참고자료(ITA 확대협상 최종타결) 참조

○ 농업 수출경쟁 : 농업 수출보조 철폐,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,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,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(무상 원조, 현물원조 지양, 현금화 규율)

○ LDC 우대 :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(waiver) 부여, 특혜 원산지 추가 단순화

□ (**협의 경과**)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수출보조 철폐 시한, 수출신용의 범위, 개도국 특별긴급관세(SSM)와 시장접근의 연계 등이 미국, 중국, 인도 등 주요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,

○ 농업 요소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사무총장과 각료회의 의장의 주재 하에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진행됨

○ WTO 20주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맞아 이를 실패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과 LDC 국가들의 높은 기대에 따라, 모든 회원국들이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음

□ (**각료 선언**) 회원국들은 전문 및 WTO 20주년의 성과와 도전과제, 이번 각료회의 성과, 향후 WTO의 작업방향 등으로 구성된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

○ 특히, DDA 협상을 현재 방식대로 계속할지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여, WTO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

* 현재 방식대로의 DDA 협상 지속에 반대하는 주요 선진국 입장과, 기존의 협상지침(mandate)에 따라 DDA 협상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다수 개도국의 입장 간 대립이 지속되어 상기 타협안을 각료선언에 반영

□ (**평가 · 의의**) 금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는 비록 DDA 협상의 [illegible]을 포괄하지는 못했으나, WTO 다자무역체제의 협상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가짐

* 농업 시장접근/국내보조, 비농산물 시장접근(NAMA), 서비스, 규범 등

○ 수출보조 철폐 시한 관련, 선진국 대비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, 개도국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수출보조를 일부 지급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

○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기간 내내 집중적인 분야별 협상을 거쳐 이루어낸 결실을 치하하면서, 금번에 마련된 농업·개발 분야의 성과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

□ (**전망 · 대응**) DDA 잔여 이슈에 대해서는 나이로비 이후 지속 논의 예정이나, 금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DDA 협상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1 10:35:17

지속 여부에 대한 문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WTO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정됨

○ 특히, 미국은 각료 기조연설을 통해 “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다자주의*”를 내세우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, 내년부터는 WTO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
* 미측 예시 : 무역원활화협정(TFA) 타결,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진전,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협상 타결, 수산보조금 규율 논의 등

※ WTO 정규활동 관련, △라이베리아/아프가니스탄의 가입 승인, △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, 소규모 경제국가들에 대한 지원 지속 등 3개 각료결정(Ministerial Decision) 채택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☎ 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☎ 044-203-5631), 이보라 사무관(☎ 044-203-56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각료결정(Ministerial Decision) 주요 내용

< 도하개발어젠다(DDA) 관련 >

① 농업 : 개도국 특별긴급관세(SSM)

○ SSM은 농업협상 내 별도 세션을 통해 추가 협상

② 농업 :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

○ 발리 결정 및 2014.11월 일반이사회 결정 재확인

○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해 협상 노력

③ 농업 : 수출경쟁

○ 수출보조 철폐 : 선진국은 즉시 철폐,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, 개도국 수출물류보조(농업협정 제9.4조)는 2023년 말까지 사용 가능

* LDC와 NFIDC(식량순수입개도국)은 2030년까지 사용 가능

○ 수출신용 :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18개월 적용, 장기 영업손실 보전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책정 의무

* 농산품 수출신용 프로그램은 보조금협정상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음

○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: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

○ 식량원조 규율 : 국제 식량원조에서 무상원조 원칙, 재수출 금지, 현물원조 지양, 현금화(monetization) 규율(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화하도록 노력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1 10:35:17

④ 면화 : LDC 면화 수출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, 면화 수출보조 선진국 즉시 철폐, 개도국 2017년 이전 철폐

⑤ LDC 이슈 : LDC 국가들에 대한 특혜원산지 추가 단순화

○ 부가가치 계산시 역외재료가치법* 적용 및 동일제품에 두 가지 이상 원산지 기준 적용 배제 노력 등

* 역외재료가치비율 최대 75% 인정 고려

⑥ LDC 이슈 :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(waiver) 부여

○ 특혜부여 기간 연장(만료일 2026년 → 2030년), 서비스 위원회에서 정례이행 점검

< 참고 : WTO 일반이사회 정례 활동 관련 각료결정 >

○ TRIPS(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) 비위반 및 상황 제소 : TRIPS에 관한 분쟁 발생시 비위반 및 상황 제소(GATT 제23조 1(b) 및 [illegible]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각료결정을 차기 각료회의(MC-11)까지 연장

○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: 전자적 전송물(electronic transmissions)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(MC-11)까지 연장

○ 소규모경제(Small economies) 작업 계획 : 소규모경제 국가들이 상품·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(GVC)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작업을 지속